

보성 갯벌서 펼쳐지는 “유쾌한 뽕 레이스”



보성군이 오는 7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벌교갯벌을 달리는 '제9회 벌교갯벌 레저뽕배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레저뽕배대회, 갯벌생물 잡기 체험 모습. <보성군 제공>

내일 장양어촌체험마을서 벌교 레저뽕배대회 '팡파르' 뽕배 경기·생물 잡기·짱뚱어 무료 시식 등 행사 다채

보성군이 전통 뽕배를 이용해 벌교갯벌을 질주하는 레저뽕배대회를 개최한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7일 장양어촌체험마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보성 벌교갯벌을 달리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 및 제9회 벌교갯벌 레저뽕배대회'를 연다.

개막식에는 청소년 댄스 경연팀의 공연과 한국 타악의 좋은 친구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3개 행사가 추진된다. 주요 행사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부 전통 뽕배 경기 ▲10종 레저뽕배 경기 ▲어업유산 전시·홍보관 ▲한국의 갯벌 VR 체험 ▲갯벌 생물 잡기 및 무료 시식 ▲어린이 무료 볼 풀장 ▲페이스페인팅 등이 열린다.

'제9회 레저뽕배대회'는 벌교갯벌 레저뽕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 뽕배어업'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벌교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수단인 '뽕배'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이색적인 경기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대 행사로는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가 열리며 고운 뽕을 자랑하는 갯벌 속에서 이뤄지는 갯벌 풋살 대회, 보성 벌교갯벌에 서식하는 짱뚱어와 칠계를 맛보는 무료 시식 부스 등을 운영해 더욱 풍성한 축제를 준비했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객들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사전 접수를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장 접수하면 된다. 대회별 프로그램마다 푸짐한 상품과 시상금이 준비될 예정이다. 한편, 6일에는 '보성 뽕배어업의 중요성과 보전 가치'를 주제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의 최근 동향(Aurelie 박사), 여자만 해역 보성 벌교갯벌의 가치(김준 교수), 뽕배를 이용한 보성지역 갯벌어업의 세계적 중요성과 가치(Yagi 교수, 황길식 박사) 등을 논의하는 '뽕배어업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보성=임병연 기자

농어촌공 담양지사, 만 65-84세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상시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5일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보조금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84세 이하)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비진흥지역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을 매도한 자다. 가입자는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김경경 담양지사장은 "고령농업인들이 영농 은퇴시 빠짐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곡성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즐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 '인기'

곡성군은 5일 "곡성기차마을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곡성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은 2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여러 예능, 해외 TV에도 소개된 곡성의 대표 역사사iting 레저 프로그램이다. 3개 비행코스...4계절 체험 가능

심전경변과 산, 들을 내려다보며 활강하는 패러글라이딩은 곡성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데 최고다. 체험 장소는 곡성군 오곡면 심전경변 기차마을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유와 스릴, 모험을 4계절 내내 경험할 수 있다. 총 3개의 비행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최고의 경력을 갖춘 배터방 비행사와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관광객들은 이륙부터 비행 동안의 모든 경험을 영상으로 촬영해 나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 이일규 곡성 패러글라이딩 대표는 "곡성 패러글라이딩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최고의 비행사와 함께 곡성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지속가능 핵심프로젝트 발굴" 당부

두 차례 2025 신규 시책보고회서 124건 논의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정 및 도정의 흐름에 대응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124건의 신규 시책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리산·섬진강 별밤투어와 디톡스 관광 빌리지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같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와 구례 복지 특 운영,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

개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 등 주민 편의 증진과 인구 활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거론됐다. 또한 구례밀 빵 산업 육성과 수박 스마트 수직 재배 시범 사업 등 변화하는 농촌 산업에 대응한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시책도 포함됐다. 군은 이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확보 방안, 부지 확보 계획, 준공 후 운영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소요 예산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를 고려해 타당성이 높은 시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과 지속 가능한 구례 건설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발굴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화순천, 황금빛 코스모스로 물들다

화순군은 5일 "화순천 꽃강길에 4ha 규모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화순천 가을 꽃강길은 음악분수부터 학사리보, 벌교천까지 이어지며 지난 8월에 파종한 노란 황화코스모스와 분홍색의 왜성코스모스가 풍성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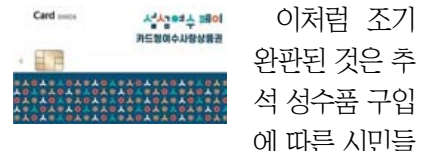
터 8월까지 개화 시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코스모스를 파종한 가운데 오는 9월 중순 코스모스 개화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가우라, 붓들레아, 낫꽃 등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연중 관리해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스모스가 만개한 화순천 꽃강길은 다채로운 음악분수의 조명과 화순의 탁 트인 전망을 바라 볼 수 있는



개미산 전망대가 위치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화순 음악분수 공연은 주 4일(수·금·토·일) 오후 8시에 운영되고 토요일은 오후 9시에 1회 추가 운영, 회당 20~25분 공연을 진행한다. /화순=이병철 기자

지역 소비 촉진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시작 11시간만 완판 '호우'

여수시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이하 카드형 상품권·사진) 15% 특별할인'이 큰 호응 속에 11시간 만에 판매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카드형 상품권 60억원 발행을 목표로 15% 할인 판매를 진행했으며, 예정된 물량이 당일 소진됐다. 이와 동시에 올해 카드형 상품권 할인 판매는 모두 종료됐으며, 지류형 상품권 7% 할인과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기 완판된 것은 추석 성수품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15% 할인 혜택에 대한 여수사랑상품권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특별할인 이후 전통시장 내 상품권 사용이 늘고, 가맹점 등록 문의가 폭증하며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상품권 판매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시의회, 위원회별 지역현안 현장방문 사업 필요성·지방채 발행 당위성 등 검토

순천시의회는 5일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28회 임시회에 제출된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관련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의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지역의 발전 방향과 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장경순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시개발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기에 조달한다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계획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림책도서관, 어울림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한 후 도서관 운영 및 개관 준비 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미연 문화경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이 순천시 문화·콘텐츠 확산과 시민 향유 확대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부서 및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책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 체육관 건립공사 현장, 조례리분구 소안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교량교 재가설 공사현장, 순천만 하포해역 갯벌생태



계 복원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항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사업지의 공사 진행사항과 안전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순천=양홍렬 기자